

한약재 표백제 단속 잠정 유보

식약청, 국내외 공통적용 기준 마련중

한약재 표백제 허용 기준치가 기존 10ppm에서 재조정되는 안이 검토중이며 시행시기도 잠정 유보됐다. 이는 올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한 식약청의 단속방침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항의방문 및 진정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한약재 표백제 허용기준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98년 10월 수입의약품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99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기준치를 10ppm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생약농업 현실에 맞지 않다"는 관련단체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유보돼 오던 중, 식약청이 올 1월1일부터 종전 방침과 같이 10ppm기준으로 한약재 표백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 함에 따라 관련단체들은 식약청을 방문 진정서를 제출했다.

관련단체들은 진정서를 통해 "한약재를 탕제화할 경우 표백제 잔류량은 86%나 감소한다"고 전제하고 "과실류도 350ppm, 건조과실류는 2000ppm이나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사용빈도가 훨씬 낮은 한약재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적절한 기준치의 재 설정을 촉구했다.

최근 식약청은 이와관련 "국내·외 한약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백제 관리기준을 마련 중이며 기준제정시의 시행시기는 WTO에 의 사전통보 및 국내 재배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더불어 한약재의 혼증제는 이미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메틸브로마이드 또는 알루미늄포스파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아황산염 검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것을 요청했다.

녹용, 회분율 35% 이하 식약청, 구랍 27일 고시

녹용의 회분율이 35%이하로 재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구랍 27일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 수재 녹용및 녹용각 개정고시'를 통해 "녹용의 절단부위부터 5cm까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회분율 35%이하로 한다"고 밝히고 녹용의 산불용성 회분및 등급을 삭제하는 한편 녹용각의 명칭및 규격도 삭제한다고 고시했다.

강원도는 내년에 45억을 들여 산림 내에 산더덕과 장뇌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구랍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청정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목재 생산 위주의 산림정책을 부가가치가 높은 청정무공해 임산물 생산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도는 내년에 9억원을 들여 68ha의 산림에 산더덕, 장뇌, 곰취, 산마늘 등 특용작물과 산초나무 등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16억원을 투입해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와 유통구조개선 등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19억9천만원을 들여 750ha의 송이재배단지에서 산림간벌작업 등 송이보호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무공해 임산물 생산지원 강원도, 내년 45억 투입

주왕산에 보호야생동물 6종 자생확인

주왕산 자연환경조사 결과 솔나리 등 보호야생식물 6종 등 모두 7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삼담배 피워보셨나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체에 덜 해롭고 금연효과가 있는 대용담배 출원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대용담배 출원은 지난 93년 이후 기존 엽연초를 대신하는 한방생약재 등을 주 흡연재료로 해마다 3~4건씩 20여건이 출원됐으며 10여건이 등록을 받았다.

대용담배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들깨잎(들깨잎 담배) 두충엽(두충엽

을 이용한 깍연물) 인삼(인삼과 당귀를 함유한 담배) 김(김을 내장시킨 켈런) 허브(담배 대용 흡연재) 등이다. 이들 대용담배에는 저마다 금연효과를 비롯해 불면증 치료, 기대·기침 없앴,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 감소 등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베이징 켈런창에서는 특수기법으로 대용담배를 개발,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희귀 수종인 망개나무 군락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지난 4월부터 지난 23일 까지 내륙과 해안 59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조사에서 밝혀졌다.

환경부 조사에서 주왕산 국립공원지역에 솔나리, 노랑무늬붓꽃, 망개나무, 깽깽이 풀, 둥근잎꿩의 비름, 바위채송화 등 보호야생 식물 6종 등 모두 70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재로 남획돼 멸종 위기에 놓인 망개나무는 주왕산 제1폭포주변에 100여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둥근잎 꿩의 비름은 희귀한 1과1속 식물로 주왕산 국립공원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랑무늬붓꽃도 주왕산 주방천 등지에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목 산야초 연구센터' 개설 충북도, 자생식물 소득자원화 추진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희귀 식물을 보호하고 우수한 유전 자원을 가지고 있는 향토자생 식물 보전과 소득자원화 등을 연구하는 산학연 합동 '수목 산야초 연구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충북도는 최근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 1-3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내에 '수목 산야초 연구센터(소장 이철희 박사·충북대 원예학과 교수)'를 개설하고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산림환경연구소직원·전문재배업 종사자 등 7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전시원 190평과 증식용 하우스 650평 등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연구센터에는 시범단지 2ha에 각종 수목과 산야초 240종 24만 포기를 확보해 놓았다.

한편 수목·산야초 연구센터는 앞으로 21세기 국제적 종자확보 경쟁시대를 대비, 중부내륙 백두대간 지역의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유전 자를 확보, 이를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 증식해 지역농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한약재에 대한 수요증가가 야생 생태계 위협

중국에서 온갖 질병 치료에 수천년간 사용된 중국전통한약(TMC)이 야생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때 중국 한약방이나 서구의 허피들이나 알고 있던 한약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적인 사업으로 바뀌었고, 치료 효과가 좋아 현대 제약회사들로부터 연구비 지 끌어들이는 정도가 됐다. 그러나 야생 생태계 전문가들은 이 한약재 재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은 야생 동식물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멸종위기동식물 무역에 관한 유엔 협정(CITES)의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인 미국의 수잔 리버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별 역할을 하지 않았던 한약이 지금은 우리가 관찰 중인 멸종위기 동식물의 거의 반에 관계돼 있다"고 말했다.

CITES는 전세계 152개국 이 비준했으며 3만종 이상의 보호 동식물 무역을 감독하고 있다.

◆ 일부 한약재 수요폭증으로 생태계 현상 유지 불가능해져

리버만 소속 위원회는 한약 수요에 의해 영향받는 동식물 자료를 검토한 결과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시베리아 사향 노루에서 나오는 사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파잉 포획과 야생 생태계 파괴로 현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향 무역의 90%는 심장병 등의 치료제로 쓰이는 한약수요에 의한 것이었다.

한약 시장 규모는 60억~200억달러 규모로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북미의 아시아계 사회등이 포함돼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한약 관계자, 중국 정부와 약초 대체제를 권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이 향후 수년간 두자리 숫자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한약에 대한 연구가 미국 의학협회 저널등 서구 의료 전문지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 야생동식물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약효있다 광고하면 식품아닌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이 생약이고 약효가 있다고 광고했다면 식품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www.scourt.go.kr)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일 의약품제조허가 없이 오리에 한약재를 섞어 만든 유향오리중탕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식품업자 한 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4억500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능 뿐 아니라 포장방법, 제품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효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식품제조·판매 허가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한약재를 사용해 유향오리중탕을 제조한 뒤 효능을 광고하고 한약복용법을 권유해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오리중탕은 의약품 제조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